

◆ JBIC, 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과 업무협력 협정 체결

JBIC은 2월 19일 투르크메니스탄 국립 대외경제은행(The State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of Turkmenistan: TVEB)과 업무 전략 및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교환 증진을 통한 일본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²⁾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면화 등의 자원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수출과 관련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등의 기업과 장기공급계약을 통하여 안정적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통해 2005년에는 7.0%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국 진출을 원하는 일본 기업은 천연가스 개발과 최첨단 면방직 기계 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JBIC은 관련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동국은 1999년 이후 IMF 조사단의 수용을 거부하는 등 국제사회와 거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4년 초 동 조사단을 받아들인 이래 최근 IMF 등 국제기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도 금년 1월 수도인 아스하바트(Ashgabat)에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한편, 본 협정은 CIS 국가와의 업무협력 협정으로서 카자흐스탄 개발은행(2003년 11월), 아제르바이잔 국제은행(2005년 1월),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가스공사(2005년 2월)에 이어 4번째이며, 중앙아시아와 일본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중앙아시아 + 일본 대화협의체'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박 성 윤】

◆ 2004년 EDC 지원실적,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549억 캐나다 달러 달성

지난 3월 초 캐나다 EDC는 2004년 업무 실적을 발표했다. 2004년 EDC의 총 지원액은 549억 캐나다 달러로 전년대비 5.8% 늘어났다. 이는 캐나다 수출이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7.6% 수출 증가를 보인 것에 기인한다. 대 개도국 지원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116억 캐나다 달러를 차지했는데, 2004년 기준으로 177개 지원국 중 개도국이 146개국이다. 총 지원

기업 숫자는 지난해 캐나다 달러의 강세로 인한 수출기업의 타격을 반영하듯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6,962社이나 여전히 약 90%는 중소기업이다.

영업이익은 8억 8,500만 캐나다 달러이며 이는 전년 대비 6.1% 감소, 금액으로는 5,700만 캐나다 달러가 감소한 금액이다. 최근 캐나다 달러 강세와 지난 2년간 통신 및 항공산업의 침체로 인한 거액 신규여신

2) 확인 매장량 2조 9,000억 m³.

축소가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0억 8,400만 캐나다 달러 증가한 12억 4,200만 캐나다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국가별, 차주별 신용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손충당금이 9억 9,800만 캐나다 달러 감소했고,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 파생금융상품의 미실현 수익 및 손실이 손익계산서 상에 반영되면서 1억 4,300만 캐나다 달러 상당의 이익이 발생했

기 때문이다.

한편, EDC의 캐나다 GDP 기여도는 2003년 대비 6.8% 증가한 347억 캐나다 달러이며 작년 한 해 동안 43만 8,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2004년 말 현재 EDC의 총 자산은 208억 캐나다 달러, 총 자본금은 71억 캐나다 달러이다.

【이 진 의】

◆ Coface의 2004년도 영업실적

지난 2월 23일 프랑스 Coface의 이사회에서 승인된 2004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영업수익은 2003년 대비 4.3% 증가한 11억 3,080만 유로로 집계되었으며 보험손해율³⁾도 46%로 지금까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이익의 71.3%를 차지한 보험 업무이익이 전년 대비 0.8% 증가한 8억 640만 유로였다. 보험 업무성과가 이처럼 저조했던 이유는 2003년도 기준 보험 실적의 26.7%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 내에서의 보험 규제가 엄격해진 결과, 보험료 징수액이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그 외 국가에서는 보험료 징수액이 각각 전년 대비 5%와 7%씩 증가하였다.

Coface의 사업분야 중 보험업무 외에 보험과 관련된 서비스 및 기업신용정보, 매출

채권 관리 등을 포괄하는 신용관리서비스는 전년 대비 21.4% 증가한 2억 3,640만 유로의 이익을 달성, 전체 영업수익 중 20.9%를 실현하였다. 특히 지난해 3월 프랑스 내에서 기업정보제공 전문 기업인 Ort社를 인수하여 기업신용정보제공 서비스분야에서 52.7%의 이익 증가율을 보였다.

팩토링 업무는 총 수익의 2.8%인 3,170만 유로의 이익을 실현하였다. Coface는 지난해 말 영국에서 팩토링 업무를 개시한 것 이외에는 주로 독일 내 영업에 의존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수탁업무는 전년 대비 9% 감소하여 총 수익 중 약 5%인 5,640만 유로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Coface가 제공한 단기보증에 대한 지급을 정부계정에서 Coface 자기계정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Coface는 2005년에도 고유가 지속 등 불리한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독

3) 보험손해율(% , loss ratio) = $\frac{\text{지불보험금(claims paid)}}{\text{수입보험료(premium earned)}} \times 100$